



“빠르고, 완벽하고, 재미있게 실행한다”
완벽에 도전하고 승리를 꿈꾸는 기업

(주)케이디파워

케이디파워(대표이사 박기주)는 전력IT분야 업체로 지능형 수배전반을 비롯해 전력IT기술을 접목한 태양광사업, LED 전력IT상품 등을 생산하는 전력기업이다.

케이디파워는 1989년 용산 전자상가에서 80만원을 투자해 전기공사업을 시작했다. 1998년 IMF외환위기 때는 중전기제조업으로 뛰어들어 ‘보이는 전기, 말하는 전기, 생각하는 전기’ 라는 모토를 표방하며, 전력과 IT기술을 접목한 세계 최초의 ‘웹 기반 산업관계 실시간 서비스’를 실시하는데 성공함으로써 미래형 전력IT기술개념을 창조했다. 그리고 이 전력IT기술과 함께 연 성장 32%라는 놀라운 속도로 불과 11년 만에 매출 2000억원이라는 신기원을 이뤄냈다.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고객의 니즈를 충족하기 위한 수평 경영을 추구하는 ‘스마트 경영’, 최고의 정보를 전 직원이 공유하는 ‘한 방향 시나리오 경영’, 100배 업무성과를 도출하는 사이버네트워크 e-프로세스를 통한 ‘사이버 경영’ 등 다양한 혁신 경영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있다.

케이디파워의 스마트 경영이란?

연구개발, 제조, 마케팅 등 가치공동체를 구축하여 수평적 역할분담에 의한 ‘한 방향 문화’를 공유





현재는 춘천에 총 18만평 규모의 전력IT문화복합단지를 조성, 예술과 기술이 만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케이디파워 드림소사이어티를 ‘유혹’이라는 테마로 준비 중이며, 2011년 기업 이전을 마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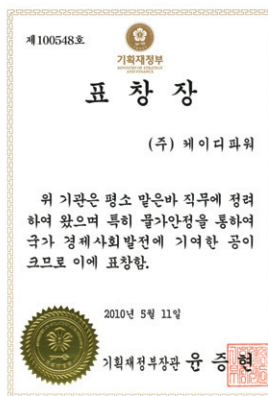
고객 만족을 위한 자신감 있는 ‘OPEN’ 과 ‘투명화’

케이디파워의 모든 공장에는 경비원이 한 명도 없다. 무인경비시스템과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는 카메라가 그 역할을 대신하며, 실시간으로 중국 공장의 구석구석까지 지켜볼 수 있는 동영상시스템은 회사 사장이나 임직원뿐 아니라 경쟁업체와 일반인에게까지 공개돼 있다.

누구라도 홈페이지(www.kdpower.co.kr)로 들어가 웹캠 단추를 누르면 공장은 물론 서울 구로동에 위치한 사무실까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카메라는 각도와 ZOOM까지 조정돼 직원들의 움직임까지 볼 수가 있다.

이 시스템은 감시가 아니라 공개를 위한 것이다. 고객에게 회사 내부의 모습을 언제든지 보여줌으로써 제품을 믿을 수 있게 만드는 전략인 동시에 케이디파워의 자신감으로 보여진다.

케이디파워 직원들의 네트워크는 모두 통합돼 있다. 만난 사람의 연락처를 단순히 모아 놓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



과의 친분을 등급별로 표시도 해 놨다. 사장의 인맥을 대리가 활용할 수도 있고 영업팀의 거래처를 구매팀에서 활용할 수도 있다.

이를 통해 부서 간, 개인 간의 막힌 벽을 제거해 최상의 파트너를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같은 대상이라도 회사 내에서 최적의 담당자를 찾아내 사업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홍길동이라는 사람을 사장, 관리이사, 영업부장이 각각 만났어도 그중 가장 친한 사람을 찾아낼 수 있도록 했다.

이 프로세스에 등록된 모든 외부인은 3단계로 등급이 매겨지는데 ‘어떤 부탁도 가능한 관계’ ‘부담 없는 부탁은 가능한 관계’ ‘그냥 안면이 있는 정도’로 표시된다. 만약 홍길동이라는 사람에게 사업상 어떤 프로젝트를 제안해야 할 경우 인트라넷에 들어와 ‘홍길동’을 치면 그를 만났던 사람 중 가장 친한 사람을 찾는 방식이다.

박 사장은 데이터베이스가 쓸모있게 작동하기 위해 직급별로 업데이트 양을 정해 놨다. 부장급은 주당 1명, 임원급은 주당 3명을 업데이트하거나 신규 네트워크로 만들어야 한다. 또 모든 회의 기록은 참가자 중 최상급자가 맡는다.

한 방향 경영을 위한 아낌없는 투자

스마트 경영을 위해 케이디파워는 매년 한 차례씩 협력업체와 함께 해외 연수를 간다. 80~90명이 참가하는 이 연수의 모든 비용은 케이디파워가 부담한다. 한 방향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협력업체와 눈높이를 맞추고 목표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매년 1억~2억원씩 드는 연수비용은 스마트 경영을 위한 투자다. 협력업체 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연간 40~50명(동반가족 포함)이 해외 포상여행을 간다.

북유럽이나 발리, 동남아 등 지역도 다양하다. 본인과 배우자의 비용 전액을 회사가 부담한다. 매년 이렇게 가다 보니 케이디파워 직원 중 몇 차례나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람도 많다.

물론 포상여행을 가는 사람은 목표 이상을 달성한 고성과 직원들이며, 이 모든 것이 직원들 스스로가 자기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 매년 추석과 설에는 모든 직원에게 장을 보게 하고 가족들을 동반해 단체로 영화관람도 한다. 경비는 모두 회사가 부담한다. 또 직원들에게는 최소 월 7만원에서 최대 40만원까지 문화 활동비가 지원된다.

‘국내 1위 달성’ 다짐을 현실로...

2010년은 주력사업인 중전분야에서 ‘국내 1위 달성’이라는 목표를 세운 의미 있는 한 해다. 이를 위해 2010 경영시나리오를 ‘목숨 걸고 수(壽)’, ‘경영바탕의 질을 높이는 질(質)’, ‘수질(壽質)경영’으로 발표하고 임직원 모두가 한 방향 한 마음으로 힘찬 전진을 하고 있다.

케이디파워인은 승리에 대한 믿음과 확신으로 2010년 또 하나의 ‘기적’을 만들기 위해 오늘도 땀과 열정을 쏟아붓는다. KEA

“2010년 케이디파워의 국내 1등 목표를 재임기간 중 본인이 지켜볼 것입니다. 케이디파워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08. 3. 1 이명박 대통령 방문시」

❖ 주요연혁 ❖

- 2010년 강릉 저탄소 녹색시범도시 조성 MOU 체결, 2010 물가안정대상 표창 수상
- 2009년 춘천 전력IT 문화복합 산업단지 인가, 성장기업부문 중소기업 표창
- 2008년 대한민국 품질경쟁력 50대 기업 선정, 첫 해외 특허(디지털 그래픽 수배전 시스템)
- 2007년 케이디파워, 김포 신공장 준공식, 2007년 전기산업진흥회 대통령상 수상
- 2006년 2006년 전기안전촉진대회 대통령상 수상
- 2005년 대한전기학회 기술상, 특허 획득(절연 저장 측정 방법 및 그 장치)
- 2004년 기술혁신 중소기업(INNO-BIZ) 인정(중소기업청)
- 2003년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1호 획득(복합기능형 수배전 시스템, 에너지관리공단)
- 2002년 2002년 품질경쟁력 50대 우수기업 선정(산업자원부)
- 2000년 iken(Web 기반 실시간 전기안전관리) 서비스 개시
- 1999년 전력 신기술 8호 지정, IR52 장영실상 수상(과학기술부)
- 1998년 국산신기술(KT) 인정- 지능형 변전실, 지능형 전력제어기(과학기술부)
- 1989년 자본금 80만원으로 창업

